

## 이승엽 시즌 9호

### 요코하마전 3점 홈런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사진)이 결정적인 순간 3점 홈런을 작렬시키며 4번 주포의 진가를 드러냈다.

이승엽은 16일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계속된 일본프로야구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방문 2차전에서 1-1로 맞선 6회 2사 1,2루의 세 번째 타석에서 상대 우완투수 데라하라 하야토의 바깥쪽 떨어지는 포크볼(137km)을 그대로 잡아 당겨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렸다.

8일 고시엔구장에서 벌어진 한신전에서 8호재 야치를 그린 지 8일 만에 나온 홈런이고 이승엽은 타점 3개를 추가, 시즌 26개째를 마크했다.

이승엽의 타격감은 전날 2안타를 터뜨린 뒤 점점 살아나는 기미를 보였다.

이승엽은 이날 2회 첫 타석에서 우중간 안타성 타구를 때렸으나 상대 1루수 호수비에 걸려 아웃됐고 4회 1사 1,3루에서는 중전 안타성 타구가 무심코 뺀 투수 데라하라의 글러브에 걸려드는 바람에 병살타로 물러났다.

결과는 좋지 않았으나 타구의 질이 나아지고 있음을 알린 셈.

결국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만들어내며 컨디션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요미우리는 이승엽 후속타자인 니오가 도모히로가 우월 솔로포를 터뜨리면서 6회 말 현재 5-1로 앞서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대통령배 고교야구 '눈물의 역투'

### 서울고 이형중 투수 4억5천만원에 LG행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 광주제일고와의 결승전에서 '눈물의 역투'로 화제를 뿌린 서울고 우완투수 이형중(18·사진)이 LG트윈스와 4억3천만원에 계약했다.

LG는 16일 2008년 1차 지명 신인으로 이형중을 낙점하고 계약금 4억3천만원, 연봉 2천만원 등 총 4억5천만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LG에 입단한 고졸 1차 지명 신인이 계약금 4억원 이상을 받는다는 2003년 내야수 박경수에 이어 이형중이 4년 만이다.

당시 성남고를 졸업한 박경수도 똑같이 4억3천만원을 받았다.

지나해 입단한 왼손 투수 봉준근이 계약금 10억원을 손에 쥐었으나 미국프로야구 출신으로 우대를 받은 것이었다.

이날 오전 계약을 마친 이형중은 "어렸을 때부터 뛰고 싶었던 LG의 유니폼을 입게 돼 무척 기쁘다. 열심히 노력해 박명환 선배 같은 에이스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형중은 지난 3일 끝난 대통령배전국고교야구대회 광주일고와 결승전에서 9회 동점을 허용한 뒤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운드를 계속 지켜 화제를 모았던 선수다.

끝내기 안타를 맞고 결국 대성통곡 했지만 아마추어의 순수함을 상징한 '눈물' 덕분에 이후 누리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185cm, 76kg의 신체조건을 갖춘 이형중은 고교 통산 27경기에 등판, 10승 4패 평균자책점 1.84를 기록했다. 특히 고교 3년 간 117.1이닝을 던지는 동안 홈런을 단 2방만 허용한 점이 인상적이다.

양천중 3학년이던 2004년 전국 중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는 성일중을 상대로 노히트노런을 기록하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KIA 최희섭 시너지 효과 기대

# 상대 투수 '움짤' 팀 방망이 '팡팡'

### 공·수 활력...상위권 진입 노려 3번타자 장성호 "타율 올릴 기회"

장성호



최희섭

"(최)희섭이 있으면 전 더 이익이죠."

10년 동안 KIA의 불박이 1루수로 활약해 온 장성호(29)는 지난 15일 수원 현대전에서 좌익수로 전업했다.

지난 2005년 7월 29일 대전 한화전에서 후 1년 9개월 여만에 처음으로 좌익수 글러브를 끼게 된 것. 이유는 조만간 데뷔할 최희섭(28)에게 1루수를 양보했기 때문이다.

당초 수비 불안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장성호는 이날 2회 현대 정성훈의 홈런성 타구를 잡아내는 등 멋진 호수비를 펼쳤고, 개인통산 5호 그랜드슬램을 터뜨리며 팀의 8-3 대승을 이끌었다.

장성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앞으로 10개월 정도 해야 외야 수비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희섭이 3번인 자신의 뒷 타석에서 서면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어 함께 뛰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오히려 만족감을 나타냈다.

물론 자신의 불박이 자리를 빼앗긴 만큼 마음이 편할 리 없겠지만, 10년 연속 3할타자에 도전하는 장성호로서 타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희섭의 가세를 반기는 분위기다.

KIA코칭스태프들도 최희섭 효과가 예상 외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훈 KIA 포수 코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온다. 타 팀 4번에 최희섭 같은 거포가 있다면 투수를 리드하는 포수 입장에서도 불 배합 등 모든 문제가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최희섭이 있다는 자제만으로도 3번과 5번 타자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우리 팀에 들어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김봉근 KIA 투수코치도 "우완 선발투수가 잘 던지더라도 승부처에서 좌타자 최희섭과 만나면 좌투수로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외간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다. 투수들의 경우 최희섭과의 승부에 집중하다 보면 다음 타자에게 장타를 내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5일 수원야구장에서 열린 2007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앞서 KIA 최희섭(왼쪽)과 장성호가 1루에서 수비훈련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실제 장성호-이재주-홍세완 등이 버티고 있는 KIA타선에 최희섭이 가세한다면 그 파괴력은 타 팀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번 이현근(타율 0.319)-3번 장성호(0.286·홈런 5개)-4번 최희섭-5번 이재주(0.290·홈런 4개)-6번 홍세완(0.306·홈런 5개)으로 이어지는 타선은 이른바 '놓고 보더라도 어느팀에도 뒤지지 않는다.'

특히 장성호-이재주-홍세완은 언제든 한방을 터뜨릴 수 있는 장거리 타자들로 투수들이 정면 승부를 꺼려하는 스타일이다.

상대팀 투수의 입장에서 최희섭의 타격감을 뽐내고 있는 이현근을 시작으로 장거리 타자들을 연속적으로 상대하기란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최희섭의 파워는 어느 정도로 위력적일까.

이승엽의 타격 스승으로 유명한 박승호 KIA 수석 코치는 지금까지 지켜본 왼손 타자들과는 파워나 타구의 질 면에서 그 격이 다르다고 말한다.

박 코치는 "최희섭은 역대 국내 프로야구 왼손타자 중 최고 힘을 자랑한다. 그것도 힘의 질이 다르다"면서 "삼선 코치 시절 양준혁과 이승엽, 김기태를 지켜봤고, SK에선 이진영, KIA에선 장성호도 가르쳤다. 주니치로 간 이병규를 빼고는 국내 최고의 왼손타자는 모두 내 손을 거쳐는데 파워에서는 최희섭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박 코치는 "실전에 투입돼야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대전구장같은 경우에는 대충 맞기만 해도 넘어갈 정도로 힘이 넘친다"라며 최희섭의 활약을 자신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그린 '슈퍼 루키' 김경태 올부터 3년간 풀시드 획득

### 아시아나항공 1년간 무료 이용권 전달

한국남자프로골프의 '슈퍼 루키' 김경태(21·신한은행·사진)의 시드권 논란이 올해부터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코리안 투어 시드 우선 순위 규정을 개정해 정규 투어 우승자에게 이듬해부터 2년 동안 풀시드를 주던 것을 우승 당해 연도에도 부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올 시즌 SBS 토마토저축은행 오픈과 GS칼텍스 매경오픈을 연속 우승했던 김경태는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코리안투어에 모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김경태는 2006년 도하아시아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하느라 KPGA 시드 순위전에 나가지 못해 올 시즌을 대기 순위 21번 선수로 시작했지만 시즌 개막전인 토마토저축은행 오픈에서 우승했다. 이 때문에 "투어 대회 챔피언이 대회 때마다 출전 순서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KPGA는 규정을 고쳐 김경태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KPGA 관계자는 "이번 개정 규정으로 우승한 유망 선수에게 즉각 시드를 부여함으로써 코리안 투어의 활성화와 인기 몰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은 16일 프로골퍼 김경태를 만나 아시아나항공 전 구간 비즈니스 클래스 1년 무료 이용권을 전달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프로골프협회장인 박삼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선수와 같은 훌륭한 기량을 갖춘 선수가 프로무대에서 뛸 때 한국 프로골프계도 업그레이드되며 프로골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희표기자 lion@kwangju.co.kr

## 이지영 정상 재도전

### LPGA 사이베이스클래식 출전

미국 본토에서 첫 우승 기회를 60cm 퍼팅 실수로 허망하게 날린 이지영(22하이마트)이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장에 올랐다.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켈름 올트라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타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연장전에 끌려 들어가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에게 우승 트로피를 넘겨준 뒤 평평 눈물을 쏟아냈던 이지영은 17일부터 나흘간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몬트클레어골프장(파72·6천433야드)에서 열리는 사이베이스클래식에 출전한다.

미켈름 올트라오픈을 치른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서 뉴욕 인근 클리프턴으로 이동하는 동안 분하고 서운했던 기억을 모조리 지웠다.

언제나 밝고 뒤끝이 없는 성격 덕이기도 하지만 난생 처음 LPGA 투어에서 치러본 연장전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자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GMG" 동아리 선배들과 연습 라운드를 치른 뒤 푸짐한 저녁식사를 한 이지영은 "경기 운영 요령을 배웠다"면서 "한동안 말쑥했던 퍼팅이 좋아져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을 목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대회 때 그를 응원했던 'GMG 회장님' 박세리(30·CJ)와 이정연(28)도 함께 출전하고 여름을 기다려온 작별 신인왕 이선화(21·CJ), 장정(27·기업은행)도 우승을 노린다.

김미현(30·KTF)도 한국 선수로서는 시즌 첫 2승에 도전한다.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카리 웹(호주), 모건 프레셀, 그리고 홈코스에서 고향 팬들의 성원을 등에 업은 마스터카드클래식 우승자 미건 프란셀라(미국) 등이 경계 대상이다.

최희표기자 lion@kwangju.co.kr

## 희섭이 들어오니 "홈런왕 경쟁 불만하겠네"

메이저리그 출신 거포 최희섭(28·KIA)의 국내 무대 데뷔전이 초입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 프로야구의 최고 '거포'를 가리는 홈런왕 경쟁도 치열하게 불붙고 있다.

정규리그 504경기의 25%인 125경기가 치러진 16일 현재 홈런데뷔 판도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다.

15일 경남 마산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롯데의 경기에서 양팀 4번 타자 이대호(롯데)와 김동주(두산)가 나란히 시즌 8호 홈런을 터뜨리면서 제이콥 크루즈(한화)와 함께 공동 3위로 뛰어올랐다.

이로써 10개로 1위를 달리는 김태균(한화)과 2위 양준혁(삼성·9개) 등 5명이 2개 차 이내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올 시즌 8개 구단에서 나온 홈런은 167개로 지난

해 전체 660개와 비교해 늘지 않았지만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각팀 간 타자들의 분방이 돋보인다.

지난 해 타격 4관왕(홈런, 타율, 타점, 장타율)으로 최고 타자 자리에 오른 이대호는 올해 폭발적인 힘과 발전된 타격 기술로 투수들의 집중 견제를 이겨내고 있다.

김태균도 집지훈련에서 강도 높은 웨이트트레이닝으로 힘을 키워 첫 홈런왕 타이틀을 노리고 있고 김동주는 지난 해 월드시리즈클래식(WBC)에서 겪은 어깨 부상으로 완전히 회복돼 절정의 타격감을 뽐내고 있다.

'만세 타법'의 노장 양준혁은 팀 타선의 극심한 침체 속에도 홈런을 많이 치고 있고 크루즈도 선구안과 장타력을 겸비한 강타자로 주가를 높이고 있

다.

다만 당초 유력한 홈런왕 후보로 거론된 심정수(삼성)가 지난 달 29일 3호 홈런을 날린 뒤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KIA에서도 각각 홈런 5개를 쏘아올린 홍세완과 장성호가 공동 7위 그들을 형성하며 홈런 경쟁에 한창이다. 대타 홈런타자로 이름을 날렸던 이재주도 현재 시즌 4호를 쏘아올리며 13위에 올라 있다.

거포 최희섭의 가세로 치열한 홈런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늘을 가르는 시원한 홈런으로 팬들을 즐겁게 하는 이들이 선의의 경쟁을 이어가고 최중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